

學生指導는 계속해서

研究·啓發되어야

I. 70년대의 학생지도

경제성장에 따르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70년대는 정치·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나큰 시련을 겪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維新憲法の 제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정치적인 불안과 학생들의 계속적인 데모를 생각할 수 있고, 越南敗亡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회구하는 의식의 변화를 외면하는 일부 학생과 사회종교단체의 저항적 집단 행동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소용돌이속에서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학생지도를 위한 機構의 설치와 방법의 開發 등으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消費(?)해 왔으며 그 결과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의 문제성 제거를 위해 「分擔指導制」가 도입, 책임지워지기도 했다.

대학이 지향하는 심오한 학문의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한 奉仕에 기울여야 할 많은 시간이 학생지도라는 命題앞에 빼앗기게 되었다.

學期初 아니면 학년초에 학생 개개인이 기록하여 제출한 「면담카아드」는 2·3차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가 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說得力을 상실한 면담내용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교수와 학생사이에 相互信賴의 자세가 이룩되고 그러한 여건아래 진행되는 面談 혹은 對話가 아니라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각 대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지도 방안의 개발에 腐心하게 되었고 이러한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융통성있는 지도방법을 얻고자하는 수단의 하나가 「학생지도문제연구소」의 탄생으로 歸結되기도 했다. 학생들의 가치관변화나 외국의 학생 지도 사례가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통하여 교수에게 하나의 자료로서 제공되고 대학신문이나 다른 홍보매체에 의하여 학생면담시간이나 守則들이 전달되어 갔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

朴 贊 葵 (中央大 教授)

이 흐름에 따라 교수는 교수대로, 담당부서는 부서대로 해이해져 갔으며 새로운 突破口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연구소」의 활동도 消極적인 방향으로 脆弱해지고 設立當時의 趣旨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共認하는 事實이다.

II. 오늘의 현실과 지도원리

1980년을 전후한 우리 사회는 정치인, 기업인, 학생 그리고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오늘에는 開放社會를 지향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 간혹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빠른 속도로 올라만 가던 物價가 떨어지기도 한다. 많은 시민이 外國의 文物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外國 飛行기를 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인 시스템속에서 생활해 나가야한다는 새로운 變化와 要求에 對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가의 변화 또한 대단하다. 70년대에 外國의 대학제도에 따라 도입되고 개발되었던 系列別 학생모집이 우리 사회에서는 無理가 있다는 이유로 學科別 모집으로 환원되어 가는 인상인가 하면 卒業定員制에 따르는 입학정원의 30% 附加募集은 공부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에게 크나큰 試鍊을 안겨 주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大都市 특히 서울에의 人口集中을 방지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大原則 아래 서울의 많은 대학들이 서울주변으로 옮기는가 하면 지방의 소도시에 새로운 캠퍼스를 개설함으로써 同一大學이면서 입학생의 질적수준의 차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날 대학을 가리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象牙塔이라고 하였으나, 대학생만이 지니는 특권(?)은 사회의 변천과정과 젊은이의 價値觀의 변화에 따라 褪色해 가고 있으며 「대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광범하게 터득케 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더욱 알맞는 시대가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성들의 占有物로 되어있던 미장원에 남성들의 출입이 잦아졌고, 젊은 여성들에게 禁煙가 되

었던 담배가 일부 여대생에게까지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이라고해서 특별히 구분되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든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海外研修를 떠날 수 있는 환경아래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적 변천에 따르는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顯在化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생지도나 이를 종합하는 지도기관에서의 학생지도방안은 舊態依然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후퇴해가고 있는 느낌마저 갖게한다. 학생지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某大學院의 경우는 새로이 학생지도에 부심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학생지도를 위하여 전체 교수와 직원이 전력을 기울이던 대학이 오늘에는 극히 微溫인 태도로 反轉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무리 사회가 변천하고 학생들의 가치관이 변화한다고 해도 국가에 대한 의미는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그를 운용하는 규범은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볼 때 학생지도는 필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학생들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지난날의 그것과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대상과 방법을 위한 여건, 즉 變數가 좀더 복잡하게 加重되고 있다. 오늘을 사는 국민 모두의 平均的 思考가 求心點이 되는 體驗의 軌跡 안에서 학생지도의 원리도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을 위한 제언

西獨의 튜빙겐대학의 교수인 쉐만박사는 얼마 전 「西獨大學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아래 강연을 가진 일이 있다. 그는 18·19世紀의 서독대학이 무제한적인 자유와 학문연구의 특권을 가졌다면 오늘의 대학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즉, 학생의 입학과 졸업, 커리큘럼의 개발과 교수 등에 대하여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바,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國家存立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대학의 자유는 앞에서 말한 국민의 平均的 思考를 구심점으

로 하는 半經의 軌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경의 길이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그 국가가 위치하는 환경에 따라 調和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학에 있어서의 학문연구와 교수가 계속되고 그 국가사회를 위한 봉사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여전아래서는 학생지도가 바로 학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대학이 主體性과 自律性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대학은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개혁작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학을 구성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수백년 동안에 걸쳐 착실하게 발전시키고 정착되어온 의지를 몇년 동안에 갑자기 개혁시키려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一世代에 걸친 꾸준한 지도교육과 대학에 기여하는 周邊人들의 꾸준한 협조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사회에는 正義具現을 위한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바램이 和合을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大學人들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各樣 各色的의 참여를 해야겠다. 학생처가 중심이 된 학생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 교수의 개별면담도 인쇄물에 의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폭넓은 對話方式이 되어야겠다. 따라서 「학생지도연구소」도 몇가지 類型을 놓고 연구되어야겠다.

다음과 같은 類型의 提示로써 나의 提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방안: 각 대학의 전통을 고려하여 학생지도를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資本不足과 人的 資源의 不足에서의 연구란 충실한 결과를 이룩할 수 없으므로 개선의 餘地가 있다.

(2) 전국대학의 자율적인 협의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연구소를 併設하는 방안: 앞에서 지적한 人的 資源과 物的 資源의 원활한 提供으로 연구·개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대학교육의 광범한 분야에 걸친 分析을 통해 효율적인 학생지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정부기관이나 별도의 사단법인체로의 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 사회변동에 따르는 학생들의 문제영역을 深層으로 분석·연구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活動經費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現場과는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연구된다는 점에서 대학과의 밀접한 관계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다. *